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우리나라 청년 남녀의 경제활동상태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 청년패널자료(4개년도)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 보건정책관리전공
박 수 정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우리나라 청년 남녀의 경제활동상태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 청년패널자료(4개년도) 분석

지도 정 우 진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28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 보건정책관리전공

박 수 정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박수정의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정 우 진 인

심사위원 김 희 진 인

심사위원 박 소 희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2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감사의 말씀

대학원 입학은 제 인생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 시작이었습니다. COVID-19 유행시기와 함께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데 여러 제한점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덕분에 보건학이라는 학문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의료진으로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함에 있어 몸과 마음이 생각보다 많이 지치고 힘들기도 했지만, 막상 졸업을 앞두니 시원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을 거쳐 석사과정을 마치기까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아 주시며 논문의 모든 과정에 있어 성심성의껏 지도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정우진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지도학생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세심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박소희 교수님과 김희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건정책관리 학문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신 박은철 교수님, 장성인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졸업 후에도 교수님들께 배운 가르침을 잊지 않고 항상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논문을 쓰며 힘들 때마다 이끌어 주고 많은 도움을 준 동갑내기 다혜 그리고 이환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대학원 생활동안 좋은 동기들을 만나 많은 도움과 정서적 지지를 받은 덕분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학기 동안 함께한 보건정책학과 동기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척척석사의 길을 먼저 걸었기에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아낌없이 해 준 지연이, 소연이, 수경이, 서인이에게 덕분에 너무 든든했다고, 그리고 논문으로 지쳐있는 나날마다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은 여정이와 연희, 나의 사랑스러운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늘 자식의 선택을 믿어주고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그 누구보다 누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주는 하나뿐인 내 동생,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역경과 고난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무한한 힘을 주는 소중한 나의 가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족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졸업과 함께 10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지금, 오늘날까지 정말 애썼다고, 잘 해왔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낼 거라고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22년 겨울의 끝자락에서 인생에 있어 새로운 출발과 변화를 마주한 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연세대학교를 떠납니다.

2022년 12월

박수정 올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차 례

국문요약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5

Ⅱ. 연구방법 ····· 6
1. 연구설계 ····· 6
2. 연구대상 및 자료 ····· 9
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 12
가. 종속변수 ····· 12
나. 독립변수 ····· 13
4. 분석방법 ····· 19

Ⅲ. 연구결과 ····· 22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기술분석 ····· 22
가. 청년 남성 ····· 22
나. 청년 여성 ····· 24
2.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 관련 특성 : 단변수 분석 ····· 27
가. 청년 남성 ····· 27
나. 청년 여성 ····· 31
3.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 관련 특성 : 다변수 분석 ····· 35
가. 청년 남성 ····· 35
나. 청년 여성 ····· 39

Ⅳ. 고찰 ····· 43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 43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 5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Ⅴ. 결론 ····· 60

참고문헌 ····· 62
부록 ····· 73
Abstract ····· 77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List of Tables

Table 1. Definition of dependent variable ····· 12

Table 2. Defini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 variable of interest · 13

Table 3. Defini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 control variables ····· 18

Table 4. QIC for working correlation matrix selection ····· 21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by gender ····· 25

Table 6. Univariable analysis : Characteristic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of the youth in males ····· 29

Table 7. Univariable analysis : Characteristic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of the youth in females ····· 33

Table 8. Multivariable analysis : Characteristic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of the youth in males ····· 37

Table 9. Multivariable analysis : Characteristic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of the youth in females ····· 4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List of Figures

Figure 1. Framework of the study. ····· 8

Figure 2. Flow chart of the study population selection process. ····· 1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국 문 요 약

배경: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인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자살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청년층의 자살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비교적 드물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20-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으로, 특히 20대의 경우 자살이 전체 사망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최근 OECD 국가의 청년층 자살률이 점차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청년층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년층의 주요 자살원인 중 하나는 경제생활 문제로 밝혀졌다. 청년층의 경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연령대이며 고용을 통해 주수입원인 임금을 얻기 때문에 고용상태는 그들의 경제생활 문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년 남녀의 경제활동상태를 세분화하여 그들의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 우리나라 만 19-34세 청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특성을 확인하고자 청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살생각으로, 자살생각에 관한 문항은 3년 단위로 조사됨에 따라 3차(2009년), 6차(2012년), 9차(2015년), 12차(2018년)의 총 4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자 수는 16,834명으로 남성은 7,311명, 여성은 9,523명이다. 자살생각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 및 Chi-square 검정, 일반화 추정 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수 분석에서 모형 1은 경제활동상태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고, 모형 2는 모형 1에 사회경제적 특성을 추가로 보정하였으며, 모형 3은 모형 2에 건강관련 특성을 추가로 보정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4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결과: 경제활동상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을 보정한 다변수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공통적으로 경제활동상태, 거주지역, 조사연도,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에서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남성은 정규직 대비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1.83(95% CI=1.01-3.30)으로 유의하였고, 여성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1.71(95% CI= 1.17-2.50), 실업자에서는 2.49(95% CI=1.34-4.62), 비경제활동인구에서는 1.49(95% CI=1.02-2.1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조사연도의 경우 2009 년 대비 남성은 2012 년, 2015 년, 2018 년에서, 여성은 2012 년, 2015 년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낮았고, 청년 남녀 공통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에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높게 나타났다. 연가구소득과 스트레스는 여성에서만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이 유의하였으며, 연가구소득이 낮은 경우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주요 관심변수인 경제활동상태를 포함한 여러 특성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활동상태의 실업과 비정규직 그리고 연가구소득의 경우 청년 여성에서만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이 나타났다는 점을 통해 경제적 특성이 청년 남성보다 청년 여성의 자살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신건강에 있어 스트레스는 청년 여성의 자살생각에만 유의하였으나 우울감은 청년 남녀 모두의 자살생각에 유의하였고 특히, 남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들을 위한 고용정책과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 시,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 관련 특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핵심단어 : 청년층, 청년, 자살, 자살생각, 경제활동상태, 청년패널조사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자살은 '자기 자신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손상을 입히는 것' 으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보건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WHO, 2014). 과거에는 자살을 개인적 수준에서 살펴봄에 따라 성별, 나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상태 등을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보았으며(Han et al., 2009),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자살을 바라보는 경우에는 우울증, 자기부정 등의 정신질환과 약물남용, 고독, 좌절, 스트레스, 대인관계 장애 등을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Jung, 2011).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 역시도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조장되고 강화되어진다(Song, 2008). Durkheim(1951)은 자살을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보았으며 개별 주체의 행위를 제약하는 힘을 갖는다고 하였다. 즉, 사회구조적 특징이 개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은 심리적인 상태를 비롯하여 여러 복잡한 요인들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자살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인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2017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자살률 1위를 유지하여 '자살 공화국' 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 간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비교하였을 때, 2021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3.6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인 11.1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Statistics Korea, 2021). 또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이었으며 40대와 50대에서는 사망원인 2위, 60대에서는 사망원인 4위를 자살이 차지하였다(Statistics Korea, 2021). 이처럼 전연령에 걸쳐 자살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사망원인의 5위 안에 드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의 특성이자 사회 병리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자살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인구 전반에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거나,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중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비교적 부족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 자살의 경우에는 중년과 통합되어 분석되는 경우가 많아 청년 자살만을 다루는 연구는 더욱 드물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 자살 역시도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20-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으로 특히 20대의 경우, 자살이 전체 사망원인의 56.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자살률이 8.5%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21).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령대별 자해·자살 시도 추이를 보면 최근 4년간 자해·자살 시도는 20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20년 다른 연령대의 자해시도 비율이 3~15%인 데 비해 20대의 자해 시도 비율은 28.7%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15.1%로 뒤를 이었다(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2020).

OECD국가의 청년 자살률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 20대 자살률은 OECD 평균 10.9명 대비 19.2명으로 1.8배 높았으며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3위를 차지하였고, 30대 자살률은 OECD 평균 12.0명 대비 26.9명으로 2.2배 높았으며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였다(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2022). 또한, OECD국가의 25-34세 자살률이 점차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25-34세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Kim, 2014). 이와 같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 청년의 자살문제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살은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이 발생할 수 있지만 나이 및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차이가 존재한다(Kim, 2006; Kim, Jung and Kim, 2014). 청년층은 학업을 종료한 이후 진로 결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왕성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연령대이다. 이러한 청년층의 주요 자살원인은 정신과적 문제와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경제생활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20).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경제적 측면의 자살 원인으로는 저소득, 직업, 고용상태 등이 있는데 청년층의 경우 고용을 통해 얻게 되는 임금이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므로 특히 고용여부가 경제적 취약성 정도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경제적 원인들은 직접적으로 자살을 초래하거나 혹은 우울증을 거쳐 자살로 이어진다(Kposowa, 2001)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정신과적 문제 역시도 그들의 경제적 문제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러 경험적 연구(Jeon, Son and Han, 1988; Lee and Yun, 1969; Park and Wi, 1999)에서 자살기도자의 직업은 무직이 가장 많았다는 점을 통해 고용상태가 자살의 주요 위험요인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Durkhein(1951)는 자살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직업 생활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을 통해 대인 접촉을 계속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인 힘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청년들은 직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얻음과 동시에 정서적 안정감, 소속감, 사회적 결속력 등 심리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소속이 없는 미취업자의 경우 자살생각에 취약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고용상태는 취업과 미취업으로 양분되어 왔으나,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노동시장 내 개인의 고용상태는 더욱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여러 기업 및 기관에서는 고용의 효율성을 위해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등의 고용형태를 재구조화 하였으나,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불안정한 고용시장과 저임금화를 초래하였으며(Jun, 2016)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증가는 우리나라 자살률 증가로 이어졌다(Lee and Ha,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다 세분화하여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취업과 미취업의 이분형 분류에서 나아가 취업자의 경우 크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분류하고 임금근로자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반영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세계적 기술발전과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형태의 다변화 및 다각화, 세계경제의 침체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 국내경기 위축 등 노동시장과 경기변동 요인,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의 급변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고용불안정에 대한 위기감 및 경각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와 같은 고용환경 악화로 자발적으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증가함에 따라 청년 니트(NEET)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NEET는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약자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가 없으며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 무직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니트족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비 능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니트족의 증가는 실업률 증가와 같은 사회불안을 일으킴과 동시에 경제성장률 감소 및 국내총생산 감소 등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년 니트의 경우 구직의사가 없어 미취업한 상태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파악함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경제활동상태 범주에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여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청년의 자살생각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Jung, Kim and Lee, 2010)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불안정과 자살의 연관성에 관한 선행연구(Kim, 2014; Kim, 2013)에서도 연구결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Kim(2013)에서는 비정규직 비율 변수가 남성 자살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여성 자살률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Kim(2014)에서는 남성자살은 실업률과 연관성이 있었으나 여성자살은 실업이 아닌 불안정 노동의 정도와 연관성이 있었다. 이는 자살을 분석함에 있어서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의 경제활동상태를 포함한 여러 특성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성별에 따른 상이한 자살생각 고위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맞춤형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활용 가능한 자료가 될 것을 기대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상태와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청년 남녀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자살생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연구 질문을 가지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자살예방 대책 마련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경제활동상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성별에 따라 분석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성별에 따라 비교·분석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을 단계적으로 통제하여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성별에 따라 비교·분석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특성을 확인하고자 청년패널(Youth Panel)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살생각이며 청년패널에서 자살생각을 포함한 건강과 스트레스에 관한 문항에 대해 3년 단위로 조사함에 따라 3차(2009년), 6차(2012년), 9차(2015년), 12차(2018년)의 총 4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청년층의 연령집단의 경우,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함에 따라 만 19-34세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Park, 2021),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Jung, Kim and Lee, 2010) 역시도 청년 남성보다 청년 여성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Kim, 2014; Kim, 2013)에서는 고용불안정과 자살의 연관성에 있어 성별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Kim(2013)에서는 비정규직 비율 변수가 남성 자살률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Kim(2014)에서는 남성자살은 실업률과 연관성이 있었고 여성자살은 고용불안정과 연관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성별을 구분하여 청년의 경제활동상태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Jung, Kim and Lee, 2010)에서는 인구학적 요인(연령, 성, 교육수준, 거주지역, 배우자유무), 경제적 요인(월평균 가족소득, 직업), 건강요인(정신적 건강, 주관적 건강,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 행위적 요인(알코올, 흡연, 운동)으로 구분하여 청년의 자살생각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관심변수로 경제활동상태를 두었고, 통제변수는 사회경제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배우자여부, 연가구소득, 조사연도), 건강관련 특성(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음주, 스트레스, 우울감)으로 구분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연구대상자의 모든 변수에 대한 분포를 확인하고자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살생각과 각 변수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사용하여 단변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화 추정 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을 사용하여 경제활동상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을 단계적으로 보정한 다변수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틀은 Figure 1과 같으며, 본 연구는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의 면제승인(4-2022-1250)을 받아 수행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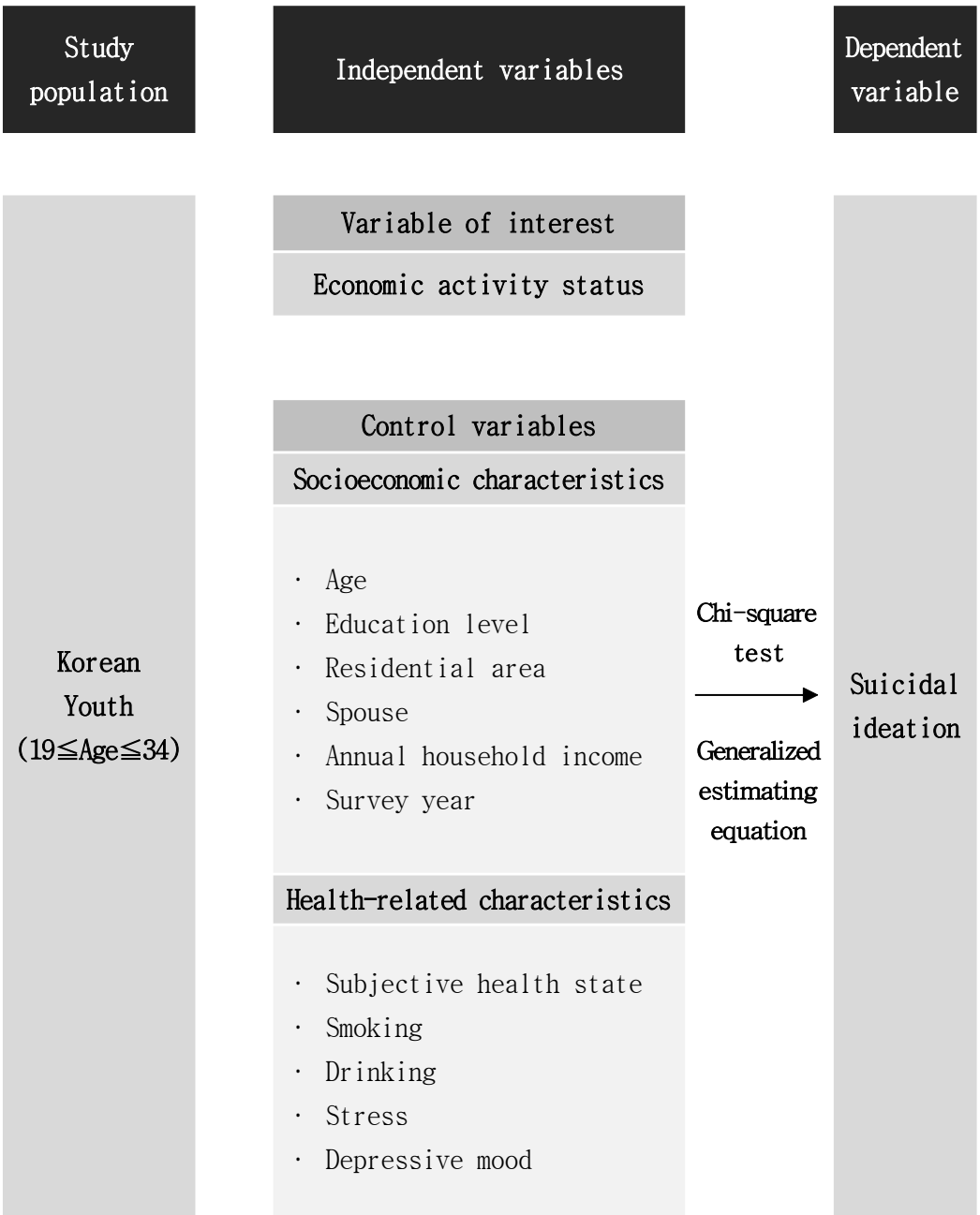

Figure 1. Framework of the study.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청년패널(Youth Pan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청년패널조사는 2007년 당시 만 15-29세 청년을 대표하는 표본에 대해 매년 추적조사를 진행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단위 패널조사이다. 청년의 학교생활, 사회 경제활동, 가계배경 등 여러 현황을 반영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동태적 분석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패널은 이중추출(double sampling)에 의한 층화추출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2006년 OES조사와 병행하여 실시된 1단계 표본에 대하여 스크린조사를 통해 청년거주가구 32,335가구 정보를 수집하였다. 스크린조사 자료 분석 결과, 청년층 거주 가구의 경우 가구당 평균 1.49명의 청년 가구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000명 수준의 청년패널 구축을 위해서 일부 무응답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9,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표본 추출 시에는 청년패널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추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층화 및 계통표집(내재적 층화 적용)의 이중표본추출법을 적용하였다. 2007년도에 표본가구 내 만 15-29세인 거주청년을 전수조사하여 최종적으로 10,206명의 1차 청년패널 표본을 구축하였다.

청년패널의 조사항목은 학교생활, 경제활동상태(취업자, 미취업자), 경험일자리 및 플랫폼 노동, 시험준비 및 직업훈련, 가구배경 등으로 되어 있으며 건강과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은 건강과 스트레스 항목에 포함되어 3년 주기로 조사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차(2009년), 6차(2012년), 9차(2015년), 12차(2018년)의 총 4개년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1개년도 이상 응답한 자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 자료집합(Dataset)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Figure 2). 청년패널의 총 4개년도(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분석 자료집합(Dataset)에서 연구대상자인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 5,394명을 제외한 후, 종속변수인 자살생각과 주요 관심변수인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무응답 또는 응답을 거절한 5,538명을 제외하였다. 이 후 종속변수와 주요 관심변수 관련 문항에는 조사되었지만 사회경제적 특성(교육수준, 배우자 여부, 연가구소득)과 건강관련 특성(주관적 건강상태, 흡연)의 무응답 또는 응답을 거절하여 발생된 결측에 대해서는 대체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모형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인 일반화 추정 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의 경우, 무응답을 처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체(imputation)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대체방법에는 단순삭제(Naive Deletion, ND), 표본 평균대체(Sample Average Imputation, SA), 행 평균대체(Row Average Imputation, RA), 횡 시점 회귀대체(Cross-wave Regression Imputation, C-W), 이월대체(Carry-over Imputation, C-O) 등이 있다. 선행연구(Kim and No, 2003)에서는 행 평균대체(RA)와 이월대체(C-O) 및 횡 시점 회귀대체(C-W) 방법의 효율성이 다른 방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을 증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횡 시점 회귀대체의 간편한 방법인 이월대체를 적용하여, j번째 시점과 j-1번째 시점에 무응답이 있는 경우 응답이 있는 가장 가까운 j-2번째 시점의 응답값을 j-1번째, j번째의 결측값에 대체하였으며 이월대체 방법을 적용한 이후에도 결측으로 남아있는 1,435명을 최종적으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된 최종 연구대상자 수는 16,834명으로 남성은 7,311명, 여성은 9,523명이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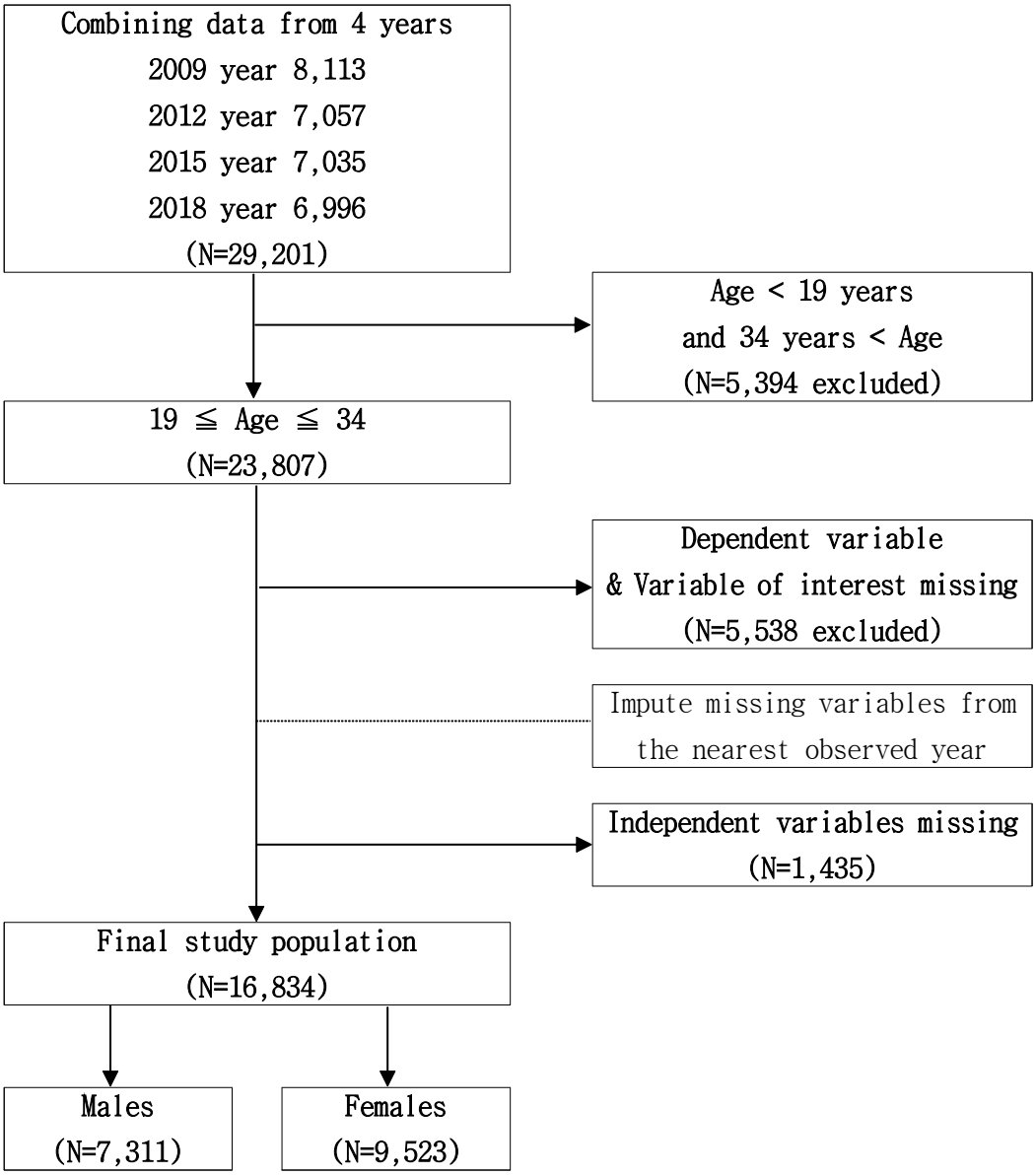

Figure 2. Flow chart of the study population selection process.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만 19-34세 청년 남녀의 자살생각이다. 자살은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에서 자살시도(Attempted suicidal), 완성된 자살인 자살행위(Suicidal behavior)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적인 개념(Harwood and Jacoby, 2000)으로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자살행동 네 가지로 구분되기도 한다(Reynold, 1988). 자살시도가 실제로 자살을 실행하는 행동적인 측면을 의미한다면 자살생각이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관련된 사고로서 자살에 대한 동기, 의지, 계획과 관련된 사고를 의미한다(Reynold, 1991). 실제 자살에 이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살시도 후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다(Lee et al., 2010). 따라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자살행위 대신 자살생각이라는 대체개념을 통해 자살을 살펴보았다. 자살생각은 자살시도나 자살로 인한 죽음과는 구별되나 자살생각을 경험한 개인의 경우 이후에 자살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Miranda et al., 2014). 이처럼 자살생각은 자살로 인한 죽음의 중요한 예측인자이며 인구집단의 정신건강수준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개입 시 중요한 지표가 된다(Han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년패널조사의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을 이용하여 각 문항에 '예', '아니오' 에 응답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Table 1. Definition of dependent variable

Variable	Category
Suicidal ideation	1. Yes 2. No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나. 독립변수

1) 주요관심변수: 경제활동상태

청년패널조사에서는 경제활동상태를 크게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분류하여 취업자는 종사상 지위와 근로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미취업자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였다. 취업자의 경우,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되었으며, 임금근로자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하였다.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른 구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으며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특수고용·가정내 근로·일일근로)로 분류하였다(부록 1, 부록 2, 부록 3, 부록 4 참조).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한 후,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반영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으며 미취업자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이 다름을 고려하여 두 군을 구분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상태 변수를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5가지 범주로 정의하였다.

Table 2. Defini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 variable of interest

Variable	Category
Economic activity status	1. Permanent workers 2. Temporary workers 3. Non-wage workers 4. The unemployed 5.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통제변수

가)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경제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배우자유무, 연가구소득, 조사연도로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였다.

① 연령

선행연구(Jung, Kim and Lee, 2010)에서는 청년층 연령 범주를 19-24세, 25-29세, 30-34세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 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함에 따라 본 청년층의 연령을 만 19-34세로 정하였으며 19-24세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으로 구분되기도 하는 연령이므로 19-24세와 25-34세를 구분하여 2개의 범주로 분석하였다.

② 교육수준

선행연구(Jung, Kim and Lee, 2010; Kim and Oh, 2014)에서는 교육수준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고졸 미만을 '중졸 이하', 고졸을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학위 이상을 '대졸이상' 으로 3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③ 거주지역

청년패널의 경우 거주지역을 1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7차 자료부터 세종이 추가되었다. 선행연구(Kim, 2022)에서는 거주지역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 으로 그 외 지역을 '비수도권'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④ 배우자유무

선행연구(Kim, 2015)에서 미혼, 기혼(동거), 별거·이혼·사별 및 기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타로 구분하였으며 자살생각이 미혼, 별거·이혼·사별 및 기타, 기혼(동거) 순으로 높았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유무에 따라 기혼 유배우를 '유배우자', 미혼, 별거, 이혼, 사별을 '무배우자' 2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⑤ 연가구소득

본 연구에서의 가구 소득은 금융소득 및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연가구소득 기준으로 보았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구 균등화 소득 산정 방법(가구 균등화 소득 = 가구 총소득 ÷ √가구 구성원의 수)을 이용하여 각 조사차수별로 연구대상자들의 연가구소득을 4분위수 결과에 따라 4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⑥ 조사연도

본 연구는 청년패널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자료를 사용하였기에 4개 년도별 비교를 위해 4개 년도를 변수로 구분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나) 건강관련 특성

건강관련 특성은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음주, 스트레스, 우울감을 변수로 포함하였다.

①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신체적, 기능적, 정신적 및 사회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단순하고 유용한 건강지표이며(Murray, Dunn and Tarnopolsky, 1982) 선행연구(Kim, 2008)에서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묻는 문항을 이용하여 매우 좋음, 좋음을 '좋음', 보통을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을 '나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② 흡연

선행연구(Jung, Kim and Lee, 2010)에서 '흡연군', '비흡연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흡연여부 문항을 이용하여 예는 '흡연자', 아니오는 '비흡연자'로 구분하였다.

③ 음주

선행연구(Kim and Song, 2010)에서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정도가 심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상태는 전혀 마시지 않음을 '비음주자', 일년에 한두 번, 한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세네 번, 거의 매일을 '음주자'로 구분하였으며 '비음주자'를 기준변수로 두어 분석하였다.

④ 스트레스

다수의 선행연구(Hong, 2004; Jung, Kim and Lee, 2010; Kim, 2011; Kim, Jung and Kim, 2014; Park, 2014; Wilburn and Smith, 2005)를 통해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문항을 이용하여 대단히 많이 느낌, 많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느낌을 ‘많이 느낌’으로 조금 느낌, 거의 느끼지 않음을 ‘조금 느낌’으로 2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⑤ 우울감

다수의 선행연구(Bae, 2009; Choi and Kim, 2008; Jung, Kim and Lee, 2010; Kang, 2005; Kim, 2008)를 통해 우울이 자살생각 및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주 이상의 연속적인 우울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이용하여 예를 ‘우울함’, 아니오를 ‘우울하지 않음’의 2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3. Defini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 control variables

Variable	Categor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ge	1. 19-24 2. 25-34
Education level	1. ≤Middle school 2. =High school 3. ≥College
Residential area	1. Metropolitan area 2. Non-metropolitan area
Spouse	1. With spouse 2. Separated, Divorced, Widowed, Unmarried
Annual household income	1. Highest 2. Second highest 3. Second lowest 4. Lowest
Survey year	1. 2009 year 2. 2012 year 3. 2015 year 4. 2018 year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Subjective health state	1. Good 2. Moderate 3. Bad
Smoking	1. Non-smoker(Never and Former smoker) 2. Current smoker
Drinking	1. Non-drinker 2. Drinker
Stress	1. Low 2. High
Depressive mood	1. No 2. Yes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년패널 3차(2009년), 6차(2012년), 9차(2015년), 12차(2018년) 자료를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C, United Stat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활동상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에 대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기술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빈도 및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단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화 추정 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 방법을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다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자료는 같은 개체에서 반복 측정된 경시적 자료(longitudinal data)이므로 반응변수의 값들이 독립이라고 할 수 없고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기에 통계적 분석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반복측정자료(repeated measured data)에서 종속변수가 이분형인 경우 분석방법은 크게 일반화 추정 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과 일반화 선형 혼합모형(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s: GLMM)의 방법으로 분류된다(Breslow and Clayton, 1993).

Liang and Zeger(1986)에 의해 개발된 GEE는 각각의 변수들의 결과값이 독립인 일반화 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 GLM)을 확장시킨 방법으로 종속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가상관 행렬(working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correlation matrix)을 가정하여 반복 측정된 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분석방법이다. GEE는 모수의 분포에 대한 전제로부터 자유로워서 설명변수와 반응변수 사이의 연결함수가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에도 반응변수의 주변분포 및 관찰된 상관관계 구조를 통해 유사도함수에 근거한 점근적 추정량을 산출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GEE는 상관관계 구조(working correlation matrix)가 잘못 가정되더라도 견고한(robust)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Liang and Zeger, 1986). 반면, GLMM은 최대우도 추정법(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는 mixed model으로 고정요인(fixed effect)와 임의요인(random effects)의 분포에 대한 정확한 가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잘못된 추정과 편향된 추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GEE방법을 적용한 다변수 분석을 실시하기위해 SAS PROC GENMOD를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가 2개인 이분형 범주인 점을 고려하여 종속변수를 이항(binomial)분포로, 연결함수는 logit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GEE에서는 여러가지 상관관계 구조 중에서 unstructured, autoregressive, exchangeable, independent 모형이 가장 많이 고려되어진다. 모형의 적합도는 유사우도함수(Quasi-Likelihood Function, QIC)를 통해 검정이 가능하며 QIC가 낮을 때 적합도가 높다.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QIC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모든 모형에서 independent 모형의 QIC가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모형 1과 모형 3에서는 independent 모형의 QIC가 가장 낮았으며 모형2에서는 unstructured 모형의 QIC가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모든 모형에 independent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모형의 QIC 값은 다음과 같다(Table 4).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으며 VIF가 모두 2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다변수 분석에서는 단계별 분석을 시행하여 모형 1에서는 경제활동상태와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모형 2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여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 건강관련 특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여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각 수준별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Table 4. QIC for working correlation matrix selection

Sex	Correlation	QIC		
		Model 1	Model 2	Model 3
Male	Autoregressive	1064.4384	1057.9302	865.2725
	Independent	1064.2868	1057.7248	864.5981
	Unstructured	1064.5629	1059.6636	865.4519
	Exchangeable	1064.5390	1058.1961	865.2095
Female	Autoregressive	2396.0446	2339.6793	2033.8982
	Independent	2395.5373	2339.5858	2033.7867
	Unstructured	2396.0611	2339.5826	2035.2275
	Exchangeable	2396.0368	2339.6429	2033.9339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기술분석

청년패널 3차(2009년), 6차(2012년), 9차(2015년), 12차(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만 19-3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회 이상 조사된 대상자를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자는 총 16,834명이며 남성은 7,311명(43.43%), 여성은 9,523명(56.57%)으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5).

가. 청년 남성

청년 남성의 경우, 2009년은 1,566명, 2012년은 2,051명, 2015년은 2,030명, 2018년은 1,664명이었으며 최종 연구대상자는 총 7,311명이다.

자살생각이 있는 군은 103명(1.41%)이었으며 자살생각이 없는 군은 7,208명(98.59%)이었다. 경제활동상태는 정규직이 4,610명(63.06%)로 가장 많았으며 비정규직이 1,009명(13.80%), 비임금근로자가 443명(6.06%), 실업자가 348명(4.76%), 비경제활동인구가 901명(12.32%)이었다.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19-24세가 1,757명(24.03%), 25-34세가 5,554명(75.97%)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3,495(47.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 이하가 2,094명(28.64%), 고졸이 1,722명(23.55%)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역은 수도권이 3,628명(49.62%), 비수도권이 3,683명(50.38%)으로 비슷하게 분포하였다. 배우자유무는 배우자 있는 군이 694명(9.49%), 배우자가 없는 군(별거, 이혼, 사별, 미혼)이 6,617명(90.51%)으로 확인되었다. 연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군은 1,683명(23.02%), 두 번째로 낮은 군은 1,953명(26.71%), 두 번째로 높은 군은 1,633명(22.34%), 가장 높은 군은 2,042명(27.93%)이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건강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군이 6,348명(86.83%), 보통인 군이 722명(9.88%), 나쁜 군이 241명(3.30%)이었다. 흡연은 현재 흡연하지 않는 군이 4,667명(63.84%), 현재 흡연하는 군이 2,644명(36.16%)으로 현재 흡연자에 비해 현재 비흡연자가 더 많았다. 음주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거나 최근 1년간 술을 마시지 않은 군이 875명(11.97%), 현재 술을 마시는 군이 6,436명(88.03%)을 차지하였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조금 느끼는 군이 5,139(70.29%), 많이 느끼는 군이 2,172명(29.71%)이었다. 마지막으로 우울감은 우울하지 않은 군이 7,065명(96.64%), 우울한 군이 246명(3.36%)으로 확인되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나. 청년 여성

청년 여성의 경우, 2009년은 2,206명, 2012년은 2,688명, 2015년은 2,557명, 2018년은 2,072명이었으며 최종 연구대상자는 총 9,523명이다.

자살생각이 있는 군은 264명(2.77%), 자살생각이 없는 군은 9,259명(97.23%)이었다. 경제활동상태는 정규직이 4,861명(51.04%)로 가장 많았으며 비정규직이 1,300명(13.65%), 비임금근로자가 382명(4.01%), 실업자가 284명(2.98%), 비경제활동인구가 2,696명(28.31%)이었다.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19-24세가 4,288명(45.03%), 25-34세가 5,235명(54.97%)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4,596명(48.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 이하가 2,152명(22.60%), 고졸이 2,775명(29.14%)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역은 수도권이 4,687명(49.22%), 비수도권이 4,836명(50.78%)으로 비슷하게 분포하였다. 배우자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군이 1,480명(15.54%), 배우자가 없는 군(별거, 이혼, 사별, 미혼)이 8,043명(84.46%)으로 확인되었다. 연가구소득의 경우 골고루 분포하였는데 소득이 가장 낮은 군은 2,255명(23.68%), 두 번째로 낮은 군은 2,495명(26.20%), 두 번째로 높은 군은 2,214명(23.25%), 가장 높은 군은 2,559명(26.87%)이었다.

건강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군이 7,908명(83.04%), 보통인 군이 1,291명(13.56%), 나쁜 군이 324명(3.40%)이었다. 흡연은 현재 흡연하지 않는 군이 9,313명(97.79%), 현재 흡연하는 군이 210명(2.21%)으로 현재 흡연자에 비해 현재 비흡연자가 더 많았다. 음주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거나 최근 1년간 술을 마시지 않은 군이 2,305명(24.20%), 술을 마시는 군이 7,218명(75.80%)을 차지하였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조금 느끼는 군이 6,638명(69.70%), 많이 느끼는 군이 2,885명(30.30%)이었다. 마지막으로 우울감은 우울하지 않은 군이 9,046명(94.99%), 우울한 군이 477명(5.01%)으로 확인되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by gender

Characteristics	Males N=7,311		Females N=9,523	
	N	%	N	%
Dependent variable				
Suicidal ideation				
Yes	103	1.41	264	2.77
No	7,208	98.59	9,259	97.23
Economic activity status				
Permanent workers	4,610	63.06	4,861	51.04
Temporary workers	1,009	13.80	1,300	13.65
Non-wage workers	443	6.06	382	4.01
The unemployed	348	4.76	284	2.98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901	12.32	2,696	28.31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ge				
19-24	1,757	24.03	4,288	45.03
25-34	5,554	75.97	5,235	54.97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2,094	28.64	2,152	22.60
= High school	1,722	23.55	2,775	29.14
≥ College	3,495	47.80	4,596	48.26
Residential area				
Metropolitan area	3,628	49.62	4,687	49.22
Non-Metropolitan area	3,683	50.38	4,836	50.78
Spouse				
With spouse	694	9.49	1,480	15.54
Separated, Divorced, Widowed, Unmarried	6,617	90.51	8,043	84.46
Annual household income				
Highest	2,042	27.93	2,559	26.87
Second highest	1,633	22.34	2,214	23.25
Second lowest	1,953	26.71	2,495	26.20
Lowest	1,683	23.02	2,255	23.68
Survey year				
2009 year	1,566	21.42	2,206	23.16
2012 year	2,051	28.05	2,688	28.23
2015 year	2,030	27.77	2,557	26.85
2018 year	1,664	22.76	2,072	21.76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by gender (continued)

Characteristics	Males N=7,311		Females N=9,523	
	N	%	N	%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Subjective health state				
Good	6,348	86.83	7,908	83.04
Moderate	722	9.88	1,291	13.56
Bad	241	3.30	324	3.40
Smoking				
Non-smoker	4,667	63.84	9,313	97.79
Current smoker	2,644	36.16	210	2.21
Drinking				
Non-drinker	875	11.97	2,305	24.20
Drinker	6,436	88.03	7,218	75.80
Stress				
Low	5,139	70.29	6,638	69.70
High	2,172	29.71	2,885	30.30
Depressed mood				
No	7,065	96.64	9,046	94.99
Yes	246	3.36	477	5.0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과의 관련 특성 : 단변수 분석

연구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P-value <0.05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청년 남성

만 19-34세 청년 남성 7,311명에서 자살생각이 있는 군이 103명(1.41%), 자살생각이 없는 군은 7,208명(98.59%)이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실업자인 군이 3.16%로 자살생각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2.77%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다음 비정규직 1.98%, 비임금근로자 1.58%, 정규직 0.87% 순으로 자살생각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거주지역, 연가구소득, 조사연도에서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거주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군이 1.87%,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군이 0.95%로 약 2배 정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군이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다. 연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군이 2.32%로 자살생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소득이 두 번째로 낮은 군 1.54%, 소득이 가장 높은 군 1.03%, 소득이 두번째로 높은 군 0.80% 순으로 자살생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연도의 경우 2009년에 3.13%로 자살생각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18년에 1.26%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에서는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건강관련 특성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스트레스, 우울감이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하는 군에서 자살생각의 비율이 9.54%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군이 4.43%, 좋다고 인식하는 군이 0.76%를 차지하였다. 스트레스의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군이 2.90%,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군이 0.78%로 약 3.7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배 정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군에서 자살생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우울감의 경우 우울감을 느끼는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비율이 18.70%,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 군에서 0.81%로 나타나 우울감의 느끼는 군에서 약 23배 정도 더 높은 자살생각의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흡연과 음주에서는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6. Univariable analysis : Characteristic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of the youth in males

Characteristics	Suicidal ideation (N=7,311)				p-value
	Yes (N=103)		No (N=7,208)		
	N	%	N	%	
Economic activity status					
Permanent workers	40	0.87	4,570	99.13	<.0001
Temporary workers	20	1.98	989	98.02	
Non-wage workers	7	1.58	436	98.42	
The unemployed	11	3.16	337	96.84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25	2.77	876	97.23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ge					
19-24	24	1.37	1,733	98.63	0.8611
25-34	79	1.42	5,475	98.58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37	1.77	2,057	98.23	0.2576
=High school	22	1.28	1,700	98.72	
≥College	44	1.26	3,451	98.74	
Residential area					
Metropolitan area	68	1.87	3560	98.13	0.0008
Non-Metropolitan area	35	0.95	3648	99.05	
Spouse					
With spouse	8	1.15	686	98.85	0.5474
Separated/Divorced Widowed/Unmarried	95	1.44	6,522	98.56	
Annual household income					
Highest	21	1.03	2,021	98.97	0.0008
Second highest	13	0.80	1,620	99.20	
Second lowest	30	1.54	1,923	98.46	
Lowest	39	2.32	1,644	97.68	
Survey year					
2009 year	49	3.13	1,517	96.87	<.0001
2012 year	20	0.98	2,031	99.02	
2015 year	13	0.64	2,017	99.36	
2018 year	21	1.26	1,643	98.74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6. Univariable analysis : Characteristic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of the youth in males (continued)

Characteristics	Suicidal ideation (N=7,311)				p-value
	Yes (N=103)		No (N=7,208)		
	N	%	N	%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Subjective health state					
Good	48	0.76	6,300	99.24	<.0001
Moderate	32	4.43	690	95.57	
Bad	23	9.54	218	90.46	
Smoking					
Non-smoker	66	1.41	4,601	98.59	0.9589
Current smoker	37	1.40	2,607	98.60	
Drinking					
Non-drinker	15	1.71	860	98.29	0.4139
Drinker	88	1.37	6,348	98.63	
Stress					
Low	40	0.78	5,099	99.22	<.0001
High	63	2.90	2,109	97.10	
Depressive mood					
No	57	0.81	7,008	99.19	<.0001
Yes	46	18.70	200	81.30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나. 청년 여성

만19-34세 청년 여성 9,523명에서 자살생각이 있는 군이 264명(2.77%), 자살생각이 없는 군은 9,259명(97.23%)이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실업자인 군이 5.28%로 자살생각이 가장 높았고, 비정규직이 3.85%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다음 비경제활동인구 3.52%, 비임금근로자 2.36%, 정규직인 군 1.95% 순으로 자살생각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수준, 거주지역, 연가구소득, 조사연도에서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인 군이 4.09%로 자살생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고졸인 군 2.85%, 대졸 이상인 군 2.11% 순으로 자살생각의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군이 3.80%,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군이 1.78%로 약 2배 정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군에서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다. 연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군이 4.30%로 자살생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소득이 두 번째로 낮은 군 3.01%, 소득이 두 번째로 높은 군 2.35%, 소득이 가장 높은 군 1.56% 순으로 자살생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연도의 경우 2009년에 4.35%로 자살생각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18년에 2.85%로 두 번째로 자살생각의 비율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2012년 2.68%, 2015년 1.45% 순으로 자살생각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연령, 배우자유무에서는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건강관련 특성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흡연, 스트레스, 우울감이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하는 군에서 자살생각의 비율이 10.80%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군이 6.97%, 좋다고 인식하는 군이 1.76%를 차지하였다. 흡연의 경우 자살생각의 비율이 현재 흡연자인 군에서 8.57%, 현재 비흡연자인 군에서 2.64%로 나타나 현재 흡연자인 군에서 약 3.2배 정도 자살생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트레스의 경우 자살생각의 비율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군이 5.65%,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군이 1.52%로 나타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군에서 약 3.7배 정도 자살생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우울감의 경우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우울감을 느끼는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비율이 20.55%,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 군에서 1.84%로 나타나 우울감의 느끼는 군에서 약 11배 정도 더 높은 자살생각의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음주에서는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7. Univariable analysis : Characteristic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of the youth in females

Characteristics	Suicidal ideation (N=9,523)				p-value
	Yes (N=264)		No (N=9,259)		
	N	%	N	%	
Economic activity status					
Permanent workers	95	1.95	4,766	98.05	<.0001
Temporary workers	50	3.85	1,250	96.15	
Non-wage workers	9	2.36	373	97.64	
The unemployed	15	5.28	269	94.72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95	3.52	2,601	96.48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ge					
19-24	122	2.85	4,166	97.15	0.6949
25-34	142	2.71	5,093	97.29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88	4.09	2,064	95.91	<.0001
=High school	79	2.85	2,696	97.15	
≥College	97	2.11	4,499	97.89	
Residential area					
Metropolitan area	178	3.80	4,509	96.20	<.0001
Non-Metropolitan area	86	1.78	4,750	98.22	
Spouse					
With spouse	45	3.04	1,435	96.96	0.4939
Separated/Divorced Widowed/Unmarried	219	2.72	7,824	97.28	
Annual household income					
Highest	40	1.56	2,519	98.44	<.0001
Second highest	52	2.35	2,162	97.65	
Second lowest	75	3.01	2,420	96.99	
Lowest	97	4.30	2,158	95.70	
Survey year					
2009 year	96	4.35	2,110	95.65	<.0001
2012 year	72	2.68	2,616	97.32	
2015 year	37	1.45	2,520	98.55	
2018 year	59	2.85	2,013	97.15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7. Univariable analysis : Characteristic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of the youth in females (continued)

Characteristics	Suicidal ideation (N=9,523)				p-value
	Yes (N=264)		No (N=9,259)		
	N	%	N	%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Subjective health state					
Good	139	1.76	7,769	98.24	<.0001
Moderate	90	6.97	1,201	93.03	
Bad	35	10.80	289	89.20	
Smoking					
Non-smoker	246	2.64	9,067	97.36	<.0001
Current smoker	18	8.57	192	91.43	
Drinking					
Non-drinker	56	2.43	2,249	97.57	0.2496
Drinker	208	2.88	7,010	97.12	
Stress					
Low	101	1.52	6,537	98.48	<.0001
High	163	5.65	2,722	94.35	
Depressive mood					
No	166	1.84	8,880	98.16	<.0001
Yes	98	20.55	379	79.45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3.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 관련 특성 : 다변수 분석

청년의 자살생각과의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활동상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통제한 상태에서 GEE를 이용한 다변수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경제활동 상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의 모든 변수에 대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의 VIF가 2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가. 청년 남성

청년 남성의 다변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8). 모형 1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정규직인 군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경제활동상태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비임금근로자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는 2.31(95% CI=1.35-3.96)이었으며 정규직 대비 실업자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는 3.73(95% CI=1.88-7.41)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는 3.26(95% CI=1.96-5.4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모형 1에 사회경제적 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에서는 경제활동상태와 사회경제적 특성에서의 거주지역, 연가구소득, 조사연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경제활동상태에서는 모형 1과 동일하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과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1.92(95% CI=1.11-3.33)로 나타났으며 실업자는 정규직 대비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2.59(95% CI=1.30-5.17)로 확인되었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는 정규직 대비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2.43(95% CI=1.39-4.2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군 대비 비수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권에 거주하는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0.50(95% CI=0.32-0.76)으로 나타났다. 연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이 가장 많은 군 대비 소득이 가장 적은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2.15(95% CI=1.14-4.08)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조사연도의 경우 2009년 대비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2012년은 0.32(95% CI=0.19-0.53), 2015년은 0.21(95% CI=0.11-0.41), 2018년은 0.42(95% CI=0.24-0.74)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 건강관련 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에서는 경제활동상태와 사회경제적 특성의 거주지역, 조사연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건강관련 특성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모형 1, 모형 2와 달리 정규직 대비 비경제활동인구에서만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 실업자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정규직 대비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는 1.83(95% CI=1.01-3.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거주지역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군 대비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0.56(95% CI=0.36-0.85)으로 나타났다. 조사연도는 2009년 대비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2012년은 0.28(95% CI=0.16-0.49), 2015년은 0.23(95% CI=0.11-0.46), 2018년은 0.47(95% CI=0.26-0.8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군 대비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3.34(95% CI=1.91-5.83)이었으며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는 5.35(95% CI=3.01-9.50)이었다. 우울감은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 군 대비 우울감을 느끼는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12.54(95% CI=7.27-21.62)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8. Multivariable analysis : Characteristic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of the youth in males

(N=7,311)

Characteristic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Economic activity status						
Permanent workers	1.00		1.00		1.00	
Temporary workers	2.31**	1.35-3.96	1.92*	1.11-3.33	1.74	0.94-3.25
Non-wage workers	1.83	0.81-4.17	1.78	0.77-4.10	2.18	0.90-5.26
The unemployed	3.73***	1.88-7.41	2.59**	1.30-5.17	1.82	0.87-3.83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3.26***	1.96-5.44	2.43**	1.39-4.25	1.83*	1.01-3.30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ge						
19-24			1.00		1.00	
25-34			1.15	0.59-2.24	0.87	0.46-1.64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00		1.00	
=High school			0.80	0.45-1.44	1.01	0.55-1.87
≥College			0.88	0.48-1.61	1.22	0.62-2.39
Residential area						
Metropolitan area			1.00		1.00	
Non-Metropolitan area			0.50**	0.32-0.76	0.56**	0.36-0.85
Spouse						
With spouse			1.00		1.00	
Separated, Divorced, Widowed, Unmarried			1.64	0.60-4.46	1.31	0.55-3.10
Annual household income						
Highest			1.00		1.00	
Second highest			0.73	0.34-1.55	0.75	0.33-1.74
Second lowest			1.55	0.83-2.89	1.47	0.74-2.93
Lowest			2.15*	1.14-4.08	1.91	0.94-3.87
Survey year						
2009 year			1.00		1.00	
2012 year			0.32***	0.19-0.53	0.28***	0.16-0.49
2015 year			0.21***	0.11-0.41	0.23***	0.11-0.46
2018 year			0.42**	0.24-0.74	0.47*	0.26-0.87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8. Multivariable analysis : Characteristic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of the youth in males (continued)

Characteristic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Subjective health state						
Good					1.00	
Moderate					3.34***	1.91-5.83
Bad					5.35***	3.01-9.50
Smoking						
Non-smoker					1.00	
Current smoker					0.91	0.58-1.44
Drinking						
Non-drinker					1.00	
Current drinker					1.33	0.74-2.40
Stress						
Low					1.00	
High					1.61	0.98-2.64
Depressive mood						
No					1.00	
Yes					12.54***	7.27-21.62

* *p<0.05, **p<0.01, ***p<0.00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Model 1: Adjusted for economic activities
Model 2: Adjusted for economic activities, age, education level, residential area, spouse, annual household income, survey year
Model 3: Adjusted for economic activities, age, education level, residential area, spouse, annual household income, survey year, subjective health state, smoking, drinking, stress, depressive mood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나. 청년 여성

청년 여성의 다변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9). 모형 1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정규직인 군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경제활동상태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는 2.01(95% CI=1.40-2.87)이었으며 정규직 대비 실업자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는 2.80(95% CI=1.59-4.91)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는 1.83(95% CI=1.34-2.5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모형 1에 사회경제적 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에서는 경제활동상태와 사회경제적 특성의 거주지역, 연가구소득, 조사연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에서는 모형 1과 동일하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과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비임금근로자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1.66(95% CI=1.17-2.38)으로 나타났으며 실업자는 정규직 대비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2.14(95% CI=1.19-3.83)이었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는 정규직 대비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1.58(95% CI=1.11-2.2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거주지역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군 대비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0.44(95% CI=0.33-0.60)으로 나타났다. 연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이 가장 높은 군 대비 소득이 두 번째로 낮은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는 1.96(95% CI=1.27-3.03), 소득이 가장 낮은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는 2.77(95% CI=1.77-4.3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조사연도의 경우 2009년 대비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2012년에서 0.63(95% CI=0.46-0.85), 2015년에서 0.35(95% CI=0.24-0.52)이었다.

모형 2에 건강관련 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에서는 경제활동상태와 사회경제적 특성의 거주지역, 연가구소득, 조사연도가 유의하였으며 건강관련 특성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우울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모형 1, 모형 2와 동일하게 정규직 대비 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정규직과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비임금근로자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는 1.71(95% CI= 1.17-2.50)이었으며 실업자의 경우 정규직 대비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2.49(95% CI=1.34-4.6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정규직 대비 비경제활동인구에서는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1.49(95% CI=1.02-2.18)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0.52(95% CI=0.38-0.7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연가구소득은 소득이 가장 많은 군 대비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소득이 가장 적은 군에서 2.30(95% CI=1.45-3.65), 소득이 두 번째로 적은 군에서 1.70(95% CI=1.10-2.61), 소득이 두 번째로 높은 군에서 1.82(95% CI=1.15-2.8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조사연도의 경우 2009년 대비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2012년에서 0.64(95% CI=0.46-0.88), 2015년에서 0.36(95% CI=0.24-0.54)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군 대비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2.16(95% CI=1.54-3.04)이었으며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군 대비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는 2.15(95% CI=1.37-3.38)이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조금 있는 군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은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2.12(95% CI=1.57-2.87)이었으며 우울감은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 군 대비 우울감을 느끼는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7.25(95% CI=5.16-10.1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9. Multivariable analysis : Characteristic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of the youth in females

(N=9,523)

Characteristic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Economic activity status						
Permanent workers	1.00		1.00		1.00	
Temporary workers	2.01***	1.40-2.87	1.66**	1.17-2.38	1.71**	1.17-2.50
Non-wage workers	1.21	0.60-2.44	1.21	0.59-2.47	1.20	0.57-2.50
The unemployed	2.80***	1.59-4.91	2.14*	1.19-3.83	2.49**	1.34-4.62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1.83***	1.34-2.50	1.58*	1.11-2.26	1.49*	1.02-2.18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ge						
19-24			1.00		1.00	
25-34			1.01	0.74-1.37	1.16	0.85-1.59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00		1.00	
=High school			0.87	0.61-1.25	0.85	0.58-1.24
≥College			0.76	0.53-1.08	0.77	0.54-1.11
Residential area						
Metropolitan area			1.00		1.00	
Non-Metropolitan area			0.44***	0.33-0.60	0.52***	0.38-0.71
Spouse						
With spouse			1.00		1.00	
Separated, Divorced, Widowed, Unmarried			1.45	0.94-2.25	1.15	0.75-1.75
Annual household income						
Highest			1.00		1.00	
Second highest			1.55	0.98-2.46	1.82*	1.15-2.88
Second lowest			1.96**	1.27-3.03	1.70*	1.10-2.61
Lowest			2.77***	1.77-4.32	2.30***	1.45-3.65
Survey year						
2009 year			1.00		1.00	
2012 year			0.63**	0.46-0.85	0.64**	0.46-0.88
2015 year			0.35***	0.24-0.52	0.36***	0.24-0.54
2018 year			0.71	0.50-1.01	0.78	0.54-1.14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Table 9. Multivariable analysis : Characteristic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of the youth in females (continued)

Characteristic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Subjective health state						
Good					1.00	
Moderate					2.16***	1.54-3.04
Bad					2.15***	1.37-3.38
Smoking						
Non-smoker					1.00	
Current smoker					1.32	0.71-2.45
Drinking						
Non-drinker					1.00	
Current drinker					1.33	0.94-1.88
Stress						
Low					1.00	
High					2.12***	1.57-2.87
Depressive mood						
No					1.00	
Yes					7.25***	5.16-10.18

* *p<0.05, **p<0.01, ***p<0.00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Model 1: Adjusted for economic activities
Model 2: Adjusted for economic activities, age, education level, residential area, spouse, annual household income, survey year
Model 3: Adjusted for economic activities, age, education level, residential area, spouse, annual household income, survey year, subjective health state, smoking, drinking, stress, depressive mood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Ⅳ. 고찰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이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의 특성이자 사회 병리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따라 자살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중간 연령대인 청년 자살의 경우 인구 전반에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에 포함되거나 중년과 통합되어 청년 자살만을 다루는 연구는 비교적 드물었다. 자살은 연령과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연령을 구분하여 자살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청년층의 경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연령대인만큼 경제생활 문제가 이들의 주요 자살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청년들의 경제생활문제는 주로 고용여부와 관련이 있는데, 청년들에게 있어 고용을 통해 얻는 임금은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고용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여부를 단순히 취업과 미취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경제활동상태를 세분화하여 청년의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살은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도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만19-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경제활동상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 남녀의 경제활동상태와 여러 특성을 고려한 고용 관련 정책 및 자살예방 대책 마련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경제활동상태를 포함한 여러 특성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연구자료의 경우, 선행연구(Kim and Kwon, 2014)에서는 우리나라 16개 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도의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행정통계에서 연구에 포함되는 변수를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다른 선행연구(Kim, 2014)는 OECD 20개국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자살률과 상관성을 가지는 거시적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경우, 선행연구(Kim and Kwon, 2014)에서는 고용불안정이 경제활동과 관련된다고 보아 경제활동인구에서의 영향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로 정의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에서 20세 미만 인구는 노동시장에 거의 진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0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른 선행연구(Kim, 2014)는 OECD국가의 25-34세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인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해당연령의 자살률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년층의 연령집단을 25-34세로 설정하여 고용불안정과 자살률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방법의 경우, 청년의 고용불안정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Kim and Kwon, 2014)에서는 합동최소자승법(pooled OLS)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선행연구(Kim, 2014)에서는 대표적인 패널분석 모형으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을 활용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이전에는 청년층에 대한 연령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청년층에 대한 연령 범주가 각각 20-35세, 25-34세로 상이하였으며, 위의 선행연구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분석단위가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한 생태학적 연구이므로 집단적 차원에서 나타난 상관성을 곧바로 개인적 수준의 상관관계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고용불안정에 한하여 자살과의 관련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보다 다양한 경제활동상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연령 범주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만 19-34세로 설정하였고, 전국의 가구에 대하여 대표성 있게 추출된 청년 표본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하는 종단면 조사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단위 패널조사인 청년패널(Youth panel)의 3차(2009년), 6차(2012년), 9차(2015), 12차(2018년) 4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시 1개년도 이상 응답한 자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4개년도 반복측정 자료의 개체 내 상관을 고려한 일반화 추정 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 방법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상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과 자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생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모든 독립변수에 대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의 VIF가 모두 2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살생각의 경우 여러 선행연구(Jung, Kim and Lee, 2010; Park, 2021)를 통해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생각이 높은 것이 밝혀졌으며 선행연구(Kim, 2014; Kim, 2013)에서는 고용불안정과 자살의 연관성에 있어 성별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아 성별을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각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상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주요 관심변수인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여러 선행연구(Jeon, Son and Han, 1988; Jung, Kim and Lee, 2010; Lee and Yun, 1969; Park and Wi, 1999)에서 무직 및 실업이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상태를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일차적으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구분하였고, IMF이후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노동시장 상황과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대비 약 30% 높은 자살생각 위험도를 가진다(Lee and Ha, 2011)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고용불안정을 반영하고자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 니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이들이 속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연구대상자에 포함하여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연령은 조사표의 응답자 만나이를 사용하였으며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 에서 청년 연령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정의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연령 범주를 만 19-34세로 정하였다. 선행연구(Jung, Kim and Lee, 2010)에서는 청년층 연령 범주를 5년 단위로 19-24세, 25-29세, 30-34세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9-24세의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으로 구분되기도 하는 연령임을 고려하여 19-24세와 25-34세의 2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교육수준의 경우 선행연구(Jung, Kim and Lee, 2010; Kim and Oh, 2014)에서 중졸 이하, 고졸, 대졸이상으로 구분한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중졸 이하', '고졸', '대졸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거주지역은 청년패널자료에서 17개의 시·도로 구분하여 제공되고 있으나 표본수가 지나치게 적은 지역이 포함되어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Kim, 2022)와 같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Durkheim(1951)은 결혼상태가 자살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Tuckman과 Youngman(1963)은 별거, 이혼, 사별의 경우 미혼이나 기혼자보다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됨을 밝힌 바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연구자에 의해 독신, 별거, 이혼, 미망인에서 자살위험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Jeon, Son and Han, 1988). 이에 따라 청년들의 배우자유무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유배우자(기혼)와 무배우자(미혼, 별거, 사별, 이혼)으로 총 2개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청년패널자료에서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으나 근로소득 외에는 대부분 응답거절 또는 모름으로 답변됨에 따라 결측치가 많아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은 제외하고 근로소득과 가구원수를 이용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구 균등화 소득 산정 방법(가구 균등화 소득 = 가구 총소득 ÷ √가구 구성원의 수)을 적용하여 각 조사차수별로 연구대상자들의 연가구소득을 4분위수 결과에 따라 4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건강상태 관련 특성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신체적, 기능적, 정신적 및 사회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단순하고 유용한 건강지표이며(Murray, Dunn and Tarnopolsky, 1982),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Jung, Kim and Lee, 2010; Kim,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묻는 문항을 이용하여 매우 좋음, 좋음을 '좋음', 보통을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을 '나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흡연의 경우 흡연 집단이 비흡연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흡연여부를 묻는 문항을 이용하여 예는 '흡연자', 아니오는 '비흡연자'로 구분하였다. 흡연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는 현재 담배를 피우는 군을 의미하며 비흡연자는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았거나 과거에 담배를 피웠던 군을 포함한다.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정도가 심화됨을 밝혀낸 선행연구(Kim and Song, 2010)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음주를 포함하여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마시지 않음을 '비음주자', 일년에 한두 번, 한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세네 번, 거의 매일을 '음주자'로 2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Jung, Kim and Lee, 2010)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문항을 이용하여 대단히 많이 느낌, 많이 느낌을 '많이 느낌'으로 조금 느낌, 거의 느끼지 않음을 '조금 느낌'으로 2개의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조금 느낌'을 기준변수로 두어 분석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Bae, 2009; Choi and Kim, 2008; Jung, Kim and Lee, 2010; Kang, 2005; Kim, 2008)를 통해 우울이 자살생각 및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주 이상의 연속적인 우울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이용하여 예를 '우울함', 아니오를 '우울하지 않음'의 2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종속변수를 자살생각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살생각은 자살을 예측할 수 있으나 실제 자살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차이점이 분명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는 여성이 많은 반면, 실제 자살률은 남성에서 더 높다는 점을 통해 드러난다(Oh, Cho and Kim, 2005).

둘째, 자살생각은 연구대상자의 지난 1년 간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어 확실한 기록에 근거한 분석에 비해 한계점을 지닌다. 회상오차(recall bias)에 따라 자살생각에 대한 응답자가 실제보다 적게 나타나 각 요인들과 자살생각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경제활동상태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에 있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순 취업여부가 아닌 정규직여부에 따른 고용불안정을 반영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주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연구대상자 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청년 남녀 모두 비임금근로자에서 정규직 대비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사업의 규모 및 산업 분야 등 특성이 다르기에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실업 또는 임금근로자의 고용불안정과 자살과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비임금근로자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를 바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가구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 이외에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은 대부분 응답되지 않아 근로소득만 반영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최종모델에서 청년 여성에서는 연가구소득과 자살생각 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년 남성에서는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청년층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경제생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경제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가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구소득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시켜 분석하였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년 자살의 주요 원인이 경제생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의 경제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변수가 필요하다. 소비는 현재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미래의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기에 특정시점에서 측정된 소득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하므로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잘 반영해주는 이상적인 측정 지표라는 견해가 존재한다(Kim, 2007; Seol, 2011). 또한, 저소득이라는 요인보다는 경제적 상실감과 같이 개인이 받아들이는 경제적 상태가 자살생각과 관련성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다(Turvey et al., 2002). 따라서 개인의 경제상태를 평가하는 객관적 소득수준과 주관적 지표를 모두 고려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면 보다 현실을 반영한 연구가 될 것이다.

여섯째, 연구 분석 시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지 못하였다. 청년패널의 사용자 가이드에 따르면 종단면 가중치는 1차 조사부터 특정년도까지 연속적으로 참여한 응답자만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연도별 변화의 평균추정과 같은 순 변화(net change)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이 3년마다 조사됨에 따라 청년패널의 3차(2009년), 6차(2012년), 9차(2015년), 12차(2018년)의 연속적이지 않은 4개 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1회 이상 응답한 대상자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패널조사의 다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는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가 아닌 횡단적 단면 연구(cross-sectional study)에 해당하여 연구 분석 간에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패널조사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목적 중 하나는 무응답으로 인한 불균등 추출확률을 보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변수의 결측치에 대하여 이월대체(C-O) 방법을 적용하여 결측값을 가장 가까운 년도의 응답값으로 대체하였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자살문제에 있어 노인과 청소년 대비 비교적 소외된 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상태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전국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청년패널조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사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함에 따라 본 연구의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경제활동상태를 취업여부와 고용불안정에 중점을 둔 것에서 나아가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보다 세분화하여 우리나라 청년 남녀의 경제활동상태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 남녀의 경제활동상태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화 추정 방정식(GEE)을 이용한 다변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자는 16,834명이었으며, 남성은 7,311명(43.00%), 여성은 9,523명(57.00%)이었다.

우리나라 청년 남녀의 경제활동상태 및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최종 모형에서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청년 남성에서는 정규직 대비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 여성에서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자살생각 있을 오즈비가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관심변수인 경제활동상태를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였으며, 정규직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실업(무직)의 경우 여러 선행연구들(Jung, Kim and Lee, 2010; Lee and Yun, 1969; Park and Wi, 1999)을 통해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실업이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울, 수면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및 삶의 질 저하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Kim and Cho, 2009). 청년의 주요 자살원인이 경제생활 문제와 정신과적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업은 자살생각에 있어 상당히 치명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의 실업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이 유의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여성 청년에서만 정규직 대비 실업자에서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주로 남성이 가족부양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실업이 여성보다 남성의 정신건강에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의 예측과 다른 결과로, 성별에 관계없이 직업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해 나가며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현세대들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아 비정규직과 실업을 겪었을 때 더 큰 정신적 스트레스 및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또한, 최근 노동시장은 취업과 미취업으로 양분되는 전통적 고용형태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고용의 효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원철과 하재혁(2011)은 비정규직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자살생각의 위험이 높다고 나타났다(Lee and Ha, 2011). 본 연구에서는 청년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과 자살생각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청년 여성에서는 비정규직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불안정과 자살의 연관성을 살펴본 선행연구(Kim, 2014)에서 남성자살은 고용불안정과 연관성이 없었으나 여성자살은 고용불안정과 연관성이 있었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선행연구(Kim, 2017)에서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다른 선행연구(Kim et al., 2006)에서는 남녀를 구분하여 각각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살생각을 비교하였을 때,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어 비정규직이 자살생각에 더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비임금근로자에서는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 공통적으로 정규직 대비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선행연구(Lee, 2012)에서 자영업자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자영업 노동시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비해 사업이 비교적 영세하며 경제위기 이후 빈곤 위험 체감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자영업의 범주는 단순 노동서비스부터 전문 직종까지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임금근로자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시켜 분석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 비임금근로자의 이질적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한다면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볼 때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외부 또는 진입과정 전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하여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남성은 12.32%, 여성은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8.31%로 여성에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가정주부 또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 있는 기간이 남성에 비해 비교적 긴 편이다. 이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에 세계적인 경기불황, 고용환경 악화 등으로 장기적으로 취업이 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니트족(NEET) 역시도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다. 니트족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어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 무직자를 의미하며, 선행연구(Kim, 2022)에서는 이러한 청년 니트족이 비니트족에 비해 자살생각의 위험이 약 1.5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 공통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청년 남성은 거주지역, 조사연도에서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이 유의하였으며 청년 여성은 거주지역, 연가구소득, 조사연도에서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이 유의하였다. 연령의 경우 선행연구(Jung, Kim and Lee, 2010)에서 청년층을 19-24세, 25-29세, 30-34세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과 자살생각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 모두에서 19-24세와 25-34세 두 개의 그룹 간에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아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 공통적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은 없었다. 청년의 자살생각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Jung, Kim and Lee, 2010) 에서도 교육수준의 경우 자살생각과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나타내어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한편, 이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의 위험도 및 자살생각, 자살률이 높았다고 보고한 다른 선행연구들(Kim et al., 2010; Oh, Cho and Kim, 2005)과는 상이한 결과이기도 하다.

거주지역의 경우,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 공통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군 대비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군에서 자살생각의 위험이 낮았다.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청년 남성의 경우에는 0.56(95% CI=0.36-0.85)이었으며, 청년 여성의 경우에는 0.52(95% CI=0.38-0.71)이었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다. 하지만 2020년 연령대에 따른 시·도별 자살현황을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자살률 1-3순위를 울산, 세종, 대전이 차지하였고 30대에서는 대전, 충남, 인천이 차지하였다(Statistic Korea, 2020). 이는 자살생각과 실제 자살률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배우자유무의 경우,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 공통적으로 배우자유무에 따른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은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Jung, Kim and Lee, 2010)에서는 배우자의 유무가 청년층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한편, 다른 선행연구의 경우 결혼상태는 자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Yip and Thorburn, 2004), 특히 남성에서 결혼상태와 자살과 더욱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Corcoran and Nagar, 2010). 선행연구(Lee and Ha, 2011)에서도 기혼동거자에 비해 미혼 및 이혼·사별·별거자의 자살생각 위험도가 남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또 다른 선행연구(Kposowa, 2000)에서는 결혼상태는 남성의 자살률에만 영향을 미치며 결혼상태 중에서도 특히 이혼이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연가구소득의 경우, 청년 여성에서만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낮은 소득은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영향을 주며(Kalist, Molinari and Siahaan, 2007) 특히, 근로연령대에 있는 성인의 경우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Burrows et al., 2010)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다.

조사연도의 경우, 청년 남성은 2009년 대비 2012년, 2015년, 2018년에서 자살생각의 오즈비가 낮게 나타났고, 청년 여성은 2009년 대비 2012년, 2015년에서 자살생각의 오즈비가 낮게 나타났다. 2009년은 2008년 9월에 미국의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해이다. 여러 선행연구(Chang et al., 2009; Khang, Lynch and Kaplan, 2005; Ruhm, 2000; Yun et al., 2005)를 통해 경제위기는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2009년에서 가장 높은 자살생각의 위험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건강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청년 남성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감에서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이 유의하였으며, 청년 여성은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스, 우울감에서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흡연과 음주의 경우,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 모두 자살생각과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선행연구(Jung, Kim and Lee, 2010)의 결과를 지지한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 공통적으로 자살생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Chin, Lee and So, 2011; Kim, 2008; Lee and Ha, 2011; Taylor et al., 2007)에서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는 요인으로 밝혀진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이에 반해, 다른 선행연구들(Jung, Kim and Lee, 2010)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청년 남성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군 대비 보통인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3.34(95% CI=1.91-5.83), 나쁜 군에서 5.35(95% CI=3.01-9.50)이었으며 청년 여성은 각각 2.16(95% CI=1.54-3.04), 2.15(95% CI=1.37-3.38)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청년 여성보다 청년 남성의 자살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알려져 있다(Han et al., 2009; Kim and Kim, 2008; Park, 2012). 먼저, 스트레스의 경우 청년 남성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청년 여성에서는 자살생각과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있었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있어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밝혀진 선행연구들(Kim, Jung and Kim, 2014; Park, 2014)의 결과와 상이하였으나, 이는 본 연구의 청년 여성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낸 여러 선행연구들(Hong, 2004; Jung, Kim and Lee, 2010; Kim, 2011; Wilburn and Smith, 2005)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인 청년층의 경우,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여러 심리·사회적 변화에 대해 적응을 해야 하는 시기로서 발달단계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경우에는 취업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취업스트레스는 우울과 관련이 있으며(Park, Kim and Jung, 2009; Seo and Kim, 2012; Shim, An and Kim, 2011; Yoon and Lee, 2012), 자살 위험성을 높이고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and Cho, 2015; Hong and Park, 2015; Kim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and Chae, 2014; Seo and Kim, 2012).

우울감의 경우,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 공통적으로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우울은 정상적인 기분 변화로부터 병적인 기분상태까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근심, 침울함, 무력감 및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기분장애를 말하며(Kim, 2008), 자살은 이러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Nrugham, Larsson and Sund, 2008). 또한, 우울은 자살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며(Rainer, 1984; Weissman, 1974), 자살충동의 가장 강한 예측인자는 우울 증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Maris, Maris and Lazerwitz, 1981; Sherer, 1985). 이외의 다른 연구들(Jung, Kim and Lee, 2010; Kim, 2004; Suh, 2011)에서도 우울과 자살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의 해석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하지 않은 군에 비해 우울한 군에서 자살생각이 있을 오즈비가 청년 남성은 12.54(95% CI=7.27-21.62)이었으며, 청년 여성은 7.25(95% CI=5.16-10.18)이었다. 따라서, 우울감은 청년 여성보다 청년 남성의 자살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Kahng, 2010; Park, 2014; Park and Hong, 2020)에서 우울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자살생각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남성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청년 여성에서 실업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불안정 역시도 청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근로장소 및 근로형태, 임금 등에서 차별을 경험하며 직업을 더 쉽게 잃을 수 있어 다시 실업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며, 건강보험 및 연금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낮아 노후 역시도 불안정한 상태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은 편으로 비정규직에 따른 고용불안정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비정규직이 대거 양성된 것에 비해,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세계는 더욱 빠르게 변화해 나갈 것이며 그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산업의 등장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또,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구조 및 사회적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더욱 더 다양한 근로형태가 생겨날 것이다. 따라서, 고용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그치지 않고 현세대의 고용시장 변화를 반영한 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현실적이고 세밀한 고용안정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 마련 및 정부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구직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정규직 대비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의 다변화 및 다각화, 세계경제의 침체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 국내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고용불안정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 노동시장은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강하여 중장년층이 청년층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하여 구직활동 및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 니트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청년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있으나 해당 정책들은 실업자(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미 노동시장 내에 속해 있는 경제활동인구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청년 니트의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존재하나 청년 니트의 경우 구직 의사가 없어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더욱 더 활발한 사업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정책 및 사업활성화를 통해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시킴으로써 장기실업과 구직단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들의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구축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및 우울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청년들의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이 높았다. 청년층은 본격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시기로 발달단계에 따른 여러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청년층은 학업을 종료하고 진로 결정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기에 특히 취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연령대이다. 최근에는 고용시장 악화에 따라 고학력자임에도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업스트레스가 더 심각해질 수 있고, 자존감 하락, 자기비하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동시에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울을 거쳐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신건강관리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취업한 청년의 경우에도 직장 내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기에 이들 역시도 정신건강관리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들을 선발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군을 검토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원체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정신질환에 관한 사회 내에 자리잡은 부정적 낙인효과 제거를 통해 정신건강진료에 대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청년 남녀 공통적으로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에 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감은 청년 여성보다 청년 남성의 자살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울은 기분장애로서 정신질환에 속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접근성이 떨어져 치료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여성보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에 더욱 더 소극적이다. 이로 인해 자살생각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실제 자살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며,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와 같은 포스터 문구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정신질환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앨 필요가 있다.

청년들은 주요 생산가능인구로 이들의 자살은 미래 인적 자원의 손실을 의미하므로 이는 국가의 경제적 측면에서 큰 손실이다. 또한, 자살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에 비해 간접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적 관점에서의 손실이 크다. 2012년 20대 대분류 질병군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정해 본 결과,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은 손상 및 중독에 의한 손실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살 비용은 6조 4,769억원으로 손상 총 비용의 33.2%를 차지하였으며 20~40대와 같이 생산력이 높은 연령대에서 손실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자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다른 질병군에 비해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 및 정책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장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자살 역시도 다른 질병만큼이나 우선순위에 둘 필요성이 있다. 자살에 의한 죽음은 질병, 사고와 같은 다른 사망원인에 비하여 예방 가능성이 높은 사망원인이므로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으며 발생 이후에는 어떠한 개입과 조치도 소용이 없으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살 예방 및 관리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 남녀의 경제활동상태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경제활동상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수 분석 결과,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 공통적으로 경제활동상태와 사회경제적 특성의 거주지역, 조사연도 그리고 건강관련 특성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에서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청년 남성은 정규직 대비 비경제활동인구에서만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으나, 청년 여성은 비정규직,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연가구소득과 스트레스는 여성의 자살생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성별에 따라 자살생각 관련 특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남성이 가족부양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비정규직과 실업의 경우 남성의 정신건강에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청년 여성에서만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여성 역시도 경제활동과 더불어 자아실현을 위해 자신의 일과 직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최근 청년층의 세태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남성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아 비정규직과 실업을 겪었을 때 더 큰 정신적 스트레스 및 불안을 느껴 나타난 결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연가구소득에서도 여성에서만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경제적 특성이 청년 남성보다 청년 여성의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신건강에 있어 스트레스는 청년 여성의 자살생각에만 유의하였으나 우울감은 청년 남녀 모두의 자살생각에 유의하였고 특히, 남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기분장애 중 하나로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남성의 경우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남성들의 정신과 진료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그 결과, 실제 자살이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 관련 특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청년들을 위한 고용정책과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살문제에 있어 비교적 소외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상태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청년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본 연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상태를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보다 세분화하였으며 성별을 구분하여 우리나라 청년 남녀의 경제활동상태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청년 남녀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자살예방 대책 마련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이들의 자살률 감소시키고 국가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참고문헌

Bae JH. Factors Affecting Suicide Idea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Institute 2009;44:49-69.

Breslow NE, Clayton DG. Approximate Inference in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993;88(421):9-25.

Burrows S, Auger N, Roy M, Alix C.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suicide attempts and suicide mortality in Québec, Canada, 1990-2005. Public health 2010;124 2:78-85.

Chang S-S, Gunnell D, Sterne JA, Lu T-H, Cheng AT. Was the economic crisis 1997-1998 responsible for rising suicide rates in East/Southeast Asia? A time-trend analysis for Japan, Hong Kong, South Korea, Taiwan, Singapore and Thailand. Social science & medicine 2009;68(7):1322-31.

Chin YR, Lee HY, So ES. Suicidal ideation and associated factors by sex in Korean adults: a population-based cross-sectional survey. Int J Public Health 2011;56(4):429-39.

Choi YH, Kim SH. Suicide Ideation and Related Factors According to Depression in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08;28(2):345-55.

Corcoran P, Nagar A. Suicide and marital status in Northern Ireland.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010;45(8):795-800.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Durkheim E. Sociologie et philosophie: Préface de C. Bouglé.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1.

Han DH, Cho YA.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Optim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eking stress and Suicide Probability among Undergraduate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5;16(1):111-28.

Han SS, Kang SW, Yoo WK, Phee YG. A Study of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09;29(1):192-212.

Harwood D, Jacoby R. Suicidal Behaviour Among the Elderly.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2000.

Hong Y-S.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Self-Esteem for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Studies on Korean Youth 2004:153-82.

Hong YJ, Park JH. The effects of job-seek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uicidal ideation in senior college students who had ever thought about suicid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5;23(2):189-210.

Jeon HS, Son MS, Han SH.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icidal Attempter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988;27(2):384-94.

Jun SD. The Effect of Employment Security on Suicide Ideation: Moderating Effect of Family Function. Seoul: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2016.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Jung NR, Kim H, Lee SM. A Study of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among the Young in Korea - Using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5 Data.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10;47:45-50.

Jung YJ. Effects of socioeconomic position and school characteristics on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

Kahng SK. Does Depression Predict Suicide?: Gender and Age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Attitud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010;41(2):67-99.

Kalist DE, Molinari NA, Siahaan F. Income, employment and suicidal behavior. J Ment Health Policy Econ 2007;10(4):177-87.

Kang EJ. Factors Related to Suicide Ideation by Age Group.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5;107(0):81-6.

Khang Y-H, Lynch JW, Kaplan GA. Impact of economic crisis on cause-specific mortality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2005;34(6):1291-301.

Kim CA. The effect of employment protection on suicide rates among people aged 25-34.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4.

Kim Di. Comparison of Income and Consumption Inequalities.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2007;30(3):77-102.

Kim Du, No YH. General Research Papers : Comparison of GEE Estimators Using Imputation Methods.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Statistics 2003;16(2):407-26.

Kim HJ, Song IH. Depressive Mood, Suicidal Ideation, and Alcohol Drinking Behavior among Married Employees.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10;36:1-30.

Kim HS. The Current Trend of Suicide and Its Prevention in Life Stage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elderly and youth suicide -.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06;34:271-92.

Kim Hs, Chae PK. The Study of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early maladaptive schemas on the relationships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4;21(2):1-26.

Kim HS, Kim BS. Verifica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of Suicidal Ideation to Its Related Variabl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8;20(2):201-19.

Kim HY.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of the Unemployed. Dae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5.

Kim I-H, Muntaner C, Khang Y-H, Paek D, Cho S-I. The relationship between nonstandard working and mental health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South Korean popul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2006;63(3):566-74.

Kim JI, Oh JH. Characteristics of Self-injury, Suicide by Sex, Age, Educational Attainments and Occup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2014;25(2):152-8.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Kim JW. The Impact of Unstable Employment on Suicide: 16 Si·Do in Korea from 2003 to 2010.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Kim JW, Kwon SM. The Impact of Regional Employment Unstability on Suicide Rate in Younger Generation. Soc Secur Res 2014;30(2):117-41.

Kim KH. Depression and Suicide in Korean Adolescents.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04;10:55-68.

Kim MH, Jung-Choi KH, Jun HJ, Kawachi I.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suicidal ideation, parasuicides, and completed suicides in South Korea. Social Science & Medicine 2010;70(8):1254-61.

Kim MJ, Cho GH. The Influence of Unemployment-related Economic Stress and Caree Attitude Maturity on Hopelessness and Mental Health in Korean Youth.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9;23(60):47-62.

Kim MW. Impact of Depression and Stress on Suicide Ideation: the case of young adults. Suwon: Kyonggi University; 2011.

Kim SD. A comparative study of youth NEET and suicidal ideation : focusing on NEET types and gender. Seoul: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022.

Kim SM. Research on stress,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among male middle school students: Comparison among smokers, smokers who quit and non-smoker. Incheon: Inha University; 2016.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Kim SY, Jung MY, Kim KN.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by Age Group among Korean Adults: Using the Fif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V, 2012).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14;31(2):1-14.

Kim YA.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uicide Thinking in the Elderly: Focusing on psychological factors, religious activities, and social activities. Seoul: Chongshin University; 2008.

Kim YR. The differences of suicidal ideation by gender and type of employmen. Seoul: Yonsei University 2017.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White paper on suicide prevention. 2022. Available from http://kfsp.or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unnatural death case statistics. 2020. Available from https://www.police.go.kr

Kposowa A. Unemployment and suicide: A cohort analysis of social factors predicting suicide in the US National Longitudinal Mortality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2001;31(1):127-38.

Kposowa AJ. Marital status and suicide in the National Longitudinal Mortality Study.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2000;54(4):254-61.

Lee MA, Kim SH, Park JH, Sim EJ. Factors of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 Social Relationships and Famil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010;33:61-84.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Lee SJ.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Self-employment Continuation. Seoul: Korea University; 2012.

Lee WC, Ha JH. The Association between Nonstandard Employment and Suicidal Ideation: Data from the First~Four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11;23:89-97.

Lee YH, Yun HY. Socio-Environmental factors among attempted suicide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969;8(1):43-50.

Liang K-Y, Zeger SL. Longitudinal data analysis using generalized linear models. Biometrika 1986;73(1):13-22.

Maris R, Maris RW, Lazerwitz BM. Pathways to suicide: A survey of self-destructive behavior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Miranda R, Ortin A, Scott M, Shaffer D. Characteristics of suicidal ideation that predict the transition to future suicide attempts i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14;55(11):1288-96.

Murray J, Dunn G, Tarnopolsky A. Self-assessment of health: an exploration of the effect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Psychol Med 1982;12(2):371-8.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2020. Available from https://www.e-gen.or.kr

Nrugham L, Larsson B, Sund AM. Specific depressive symptoms and disorders as associates and predictors of suicidal acts across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adolescence. J Affect Disord 2008;111(1):83-93.

Oh JK, Cho YT, Kim C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icides in South Korea. Health and social science 2005;18:191-210.

Park BS. The Path Analysis for Mutual Relationship of Stress and Depression that Affect the Suicidality: Comparison of Sex and Age Group.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2;32(3):485-521.

Park E. Suicide Ideation and the Related Factors among Korean Adults by Gender.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2014;39(3):161-75.

Park HS, Hong SA. Gender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the Suicide Ideation of Adolescents - Based on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THE JOURNAL OF THE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020;46(3):47-57.

Park JH, Wi DH. Clinical Analysis of the Suicidal Attempters Visiting Emergency Cent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1999;10(4):568-78.

Park MJ, Kim JH, Jung MS.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for Preparing Employ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9;10(1):417-35.

Park SY. The Relationship Among Thwarted Belongingness, Meaning in Life, and Suicidal Idea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Living in the Age of COVID-19 :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xtravers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2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Rainer JD. Genetic factors in depression and su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1984;38(3):329-40.

Reynold WM.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Florida: Psychological Assesment Resources, 1988.

Reynold WM.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Adult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in college students. J Pers Assess 1991;56(2):289-307.

Ruhm CJ. Are recessions good for your heal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00;115(2):617-50.

Seo I-K, Kim S-H. Effects of College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Their Depression and Suicidal Risk. Health & Welfare 2012;14:81-99.

Seol Y.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Polarization and Inequality: Focusing on income, consumption, and education expenditure. KERI Zoom-In 2011;11(1):1-20.

Sherer M.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1985;57(3_suppl):1061-2.

Shim JE, An HY, Kim JH.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Role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2011;32(1):103-18.

Song JR. Suicide in Korean Society and Durkheim`s Theory of Suicide: in Relation to "Familistic Habits of the Heart". Korean Journal of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Social Theory 2008:123-64.

Statistic Korea. Causes of death statistics. 2020.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

Statistic Korea. Causes of death statistics. 2021.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

Suh HN.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ocusing on the effect of Stress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11;30(3):629-46.

Taylor A, Dal Grande E, Gill T, Fisher L, Goldney R. Detecting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South Australian surveillance system results. Int J Public Health 2007;52(3):142-52.

Tuckman J, Youngman WF. Identifying suicide risk groups among attempted suicides. Public Health Rep (1896) 1963;78(9):763-6.

Turvey CL, Conwell Y, Jones MP, Phillips C, Simonsick E, Pearson JL, Wallace R. Risk factors for late-life suicide: a prospective, community-based study. Am J Geriatr Psychiatry 2002;10(4):398-406.

Weissman MM. The epidemiology of suicide attempts, 1960 to 1971.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974;30(6):737-46.

WHO. Preventing suicide : a global imperative /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Wilburn VR, Smith DE. Stress,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in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late adolescents. Adolescence 2005;40(157).

Yip PS, Thorburn J. Marital status and the risk of suicide: experience from England and Wales, 1982-1996. Psychological reports 2004;94(2):401-7.

Yoon MS, Lee HS.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Job Preparing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Problem Drink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2;19(3):109-37.

Yun S-CH, In-A, Lee M-S, Lee S-I, Jo M-W, Lee M-J, Khang Y-H. Changes in Mortality Inequality in Relation to the South Korean Economic Crisis: Use of Area-based Socioeconomic Position. J Prev Med Public Health 2005;38(3):359-65.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부록 1 > 취업구분

구분	정의
취업자	조사시점 당시 특정한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혹은 수입을 목적으로 지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응답자 및 졸업 전에 미리 취업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 혹은 대학(원)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장생활(일자리)을 하고 있는 사람, 1주일에 18시간 이상 근로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해당된다.
미취업자	취업자가 아니며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아닌 경우가 해당되며, 군입대 및 제대자의 경우가 해당된다. · 실업자(구직자) : 미취업자 중 지난 1주간 또는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 비경제활동인구 : 미취업자 중 지난 1주간 또는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로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무보수로 일주일에 1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 학교를 휴학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자(군입대 대기, 진학준비, 시험준비 등), 재수생 및 특정 소속이 없는 자가 해당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부록 2 > 임금근로자의 종류

구분	정의
상용직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으로 회사의 소정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 받는 직원을 뜻한다. 단, 회사의 소정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한 사람이라도 일정한 사업 완료의 필요기간 동안 또는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자는 제외한다. 또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수혜를 받는다. 단, 몇 년을 동일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이 임시 또는 일용인 경우에는 여기에 분류해서는 안된다.
임시직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고용된 자로서 상여금 등 제수당을 받지 못하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퇴직금 비수혜자인 경우가 포함된다.
일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로서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이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부록 3 > 비임금근로자의 종류

구분	정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소규모라도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단, 무급가족종사자와 자기만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 분류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일이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수행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는 자 또는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를 뜻한다.
무급가족종사자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가족(동일 가구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부록 4 > 근로형태

구분	정의
기간제 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자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 제공시간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택/가내근로자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로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재택근로자와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가내근무자로 구분됨.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로,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자
용역근로자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일일근로자	일일근로자는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위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Abstract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Activity Status of Korean Youth and Suicidal Ideation

: Youth Panel Data (Four-Year Data) Analysis

Sujung Park
Dept. of Health Policy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jin Chung, Ph.D.)

Background: Korea is well known for having the number one suicide rate among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erefore, although many studies related to suicide have been conducted, there are relatively few studies on the suicide problem of youth. However, suicide is the number one cause of death for people in their 20s and 30s in Korea. In particular the suicide accounts for more than half out of all death causes in the case of people in their 20s. It is worth to notice that suicide rate of youth in Korea is being increased continuously while recently suicide rate among youth in OECD nations has been decreased. It is known that one of the main reasons of suicide among the youth is economic problems. Youth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is a period in which people start economic activities by entering labor markets in earnest. Since the youth earn the main resource of income through employment, the employment status is very related to their problems of economic life. Therefore, this study is to research correl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their economic status by subdividing economic activity status of the male and female youth in Korea.

Method: In order to identify characteristic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of Korean youth who is aged from 19 to 34, this study conducted analysis depending on gender by using youth panel data. This study set dependent variable with the suicidal ideation, and it utilized a total of four-year data, which are 3rd (2009), 6th (2012), 9th (2015), and 12th (2018), because questionnaires on suicidal ideation are surveyed every three years. This study selected final research subjects with 16,834 young people. The male youth are 7,311 and female youth are 9,523. In order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the suicidal ideation, this study operated analysis by using descriptive analysis, Chi-square test, and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 In multivariate analysis, model 1 verified a relation between economic activity status and suicidal ideation. Model 2 additionally adjuste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to the model 1. Model 3 additionally adjuste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into the model 2. This study utilized SAS version 9.4 for every analysis and set significance level at 5%.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Resul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ultivariate analysis adjusted by economic activity statu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both men and women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of suicidal ideation with economic activity status, residential area, survey year, subjective health state, and depressive mood. In the case of economic activity status, men who are economically inactive showed significant odds ratio of suicidal ideation as 1.83(95% CI=1.01-3.30) compared to the others who are permanent workers. Women who are temporary workers showed statistically high significant odds ratio of suicidal ideation as 1.71(95% CI= 1.17-2.50) compared to the others who are permanent workers. Women who are unemployed showed statistically high significant odds ratio of suicidal ideation as 2.49(95% CI=1.34-4.62), and women who are economically inactive showed 1.49(95% CI=1.02-2.18). In terms of the survey years, men showed lower odds ratio of suicidal ideation in 2012, 2015, and 2018 compared to 2009. Women showed lower odds ratio of suicidal ideation in 2012 and 2015. Both young men and women showed high odds ratio of suicidal ideation as they live in metropolitan areas, they have poor subjective health state, and they feel depressive mood. Only in the female youth, annual household income and stres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When they had low household income and got stressed a lot, the odds ratio of suicidal ideation was high.

Conclusion: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is study verified that there are difference depending on gender in correlation between various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characteristics including economic activity status which is a major interest variable and suicidal ideation. Through the fact that, only in the case of women, there are correlation with suicidal ideation and economic activity status in the case of unemployment, temporary working, and annual household income, this study verified that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could have more influence on the suicidal ideation of young women than young men. In addition, in the case of mental health, stress was significant variable of suicidal ideation only for women but depression was significant variable for both young men and women, and in particular it could have more influence on the male youth. Therefore, if establishing employment policies,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s, and suicide prevention policies for the you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haracteristic differenc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depending on gender difference.

Keywords : The Youth, Suicide, Suicidal Ideation, Economic Activity Status, Youth Panel